

연결과 소통, 지구촌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종합정보지

PEACE ROAD



magazine

가을
Vol. 22 | 2014

Cover Story

한반도 중심국가론과 피스로드

한일 21세기 인류문명 선도 비전 창출을 | 홍일식

내 생각에는 | 정태익

고려인들 미래의 피스로드를 달리다

인물탐방 | 최연혜

“동북아 평화시대 열 교두보 마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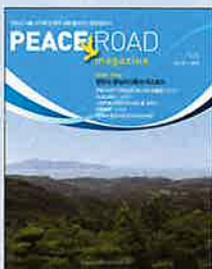
2014 가을 통권 22호



- 28 **내 생각에는** | 고려인을 미래의 피스로드를 달리다 | 정태익
- 30 **인물탐방** | 평양 국제철도기구 회의 다녀온 최연혜 “동북아 평화시대 열 교두보 마련”
- 39 **지상중계** | 동북아 세력전환과 위기의 한일관계 | 신각수
- 45 **기획탐방** | 한일 대학생 피스로드 현장을 가다
여정스케치 | 편집부
인사말 | 김병수
환영사 | 도쿠노 에이치
한일대학생 소감 | 강규원 외
- 54 **기고** | 의사협회 집단휴진 유감 | 서석희
- 56 **NEWS & ISSUE** | 세계평화 이끌 한일터널 대마도 조사사건 기공식 외
- 58 **발행인의 편지** | 세계평화터널재단 본 궤도...성공만 남았다 | 김병수

커버스토리 한반도 중심국가론과 피스로드

- 06 한일 21세기 인류문명 선도 비전 창출을 | 홍일식
- 11 지구촌 평화달성은 인류의 최대 목표 | 박정진
- 15 文총재 평화사상이 한반도 문제 풀 열쇠 | 최병환
- 19 한일터널, 신세대 여는 최상의 구상 | 이관세
- 24 지구촌 하나로 연결 인류의 피스로드 ‘활짝’ | 차준영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은 일본 규슈 사기현 한일터널 조사사건에서 만나 세계평화터널재단 창설자 문선명 총재가 국제평화고속도로(일명 피스로드) 구상 일환으로 주창한 한일터널 건설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한일터널 조사사건 지상 부분에서 바라본 한반도를 향해 펼쳐진 한일터널 루트 전경.

발행일	2014년 9월 30일	발행처	세계평화터널재단 150-7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92호
발행인	김병수	등록	2010년 9월 3일
편집장	정성수	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1
사진	이장환	전화	02)3471-7696
디자인	장인선	팩스	02)3471-7690

... 알 림 ...

2014년 9월 30일부터 세계평화터널재단에서 발행하는 '피스로드매거진'이 '피스로드매거진'으로 바뀌고, 발행주기도 격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스로드(peace road)는 본 재단 창시자께서 지구촌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주창한 '국제평화고속도로망' 용어를 압축적, 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連結と疎通、平和の道を開く総合情報誌

PEACE ROAD

Magazine 秋

通巻 22 号 2014

カバーストーリ

韓半島中心国家論とピースロード

韓日 21 世紀人類文明を先導するビジョン創りを/朴・イシク

私の考えは/チョン・テ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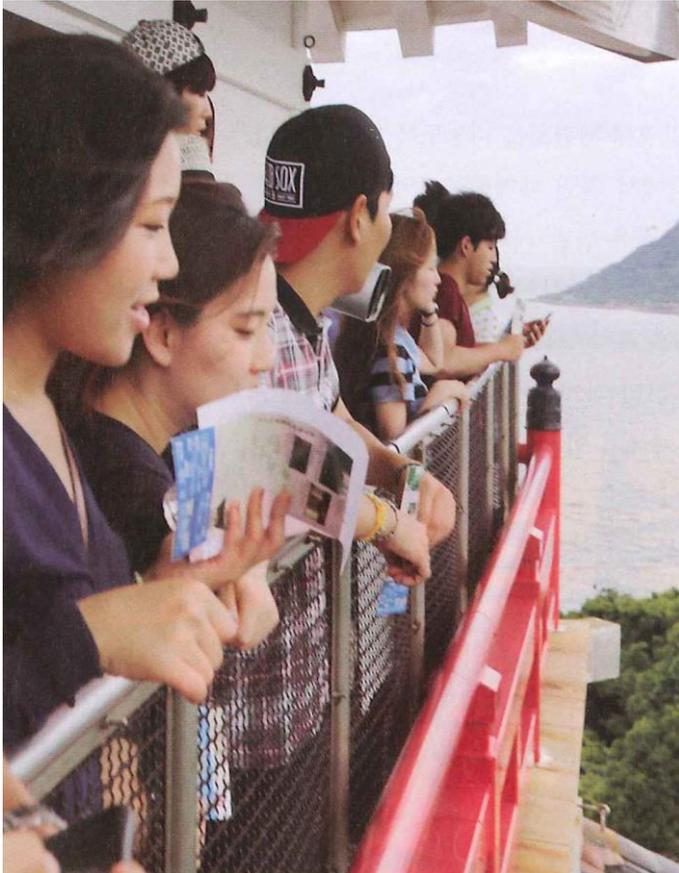
高麗人ら未来のピースロードを走る

人物探訪/チェ・ヨネ

“東北アジアの平和時代を開く橋頭堡を準備”

www.peaceroad.com

CONTENTS 2014 秋 通巻 22 号



- 28 私の考えは/高麗人ら未来のピ-スロードを走る / チョン・テイク
- 30 人物探訪 / ピョングン国際鉄道機構会議に出席したチェ・ヨネ “東北アジア平和時代を開く橋頭堡を準備”
- 39 誌上中継 / 東北アジアの勢力転換と危機の韓日関係 / シン・ガクス
- 45 企画探訪 / 韓日大学生らピ-スロードの現場に行く
旅情スケッチ / 編集部
挨拶の辞 / キム・ヒョンス
歓迎の辞 / 徳野英治
韓日大学生紹介 / カン・ギョウォン
他
- 54 寄稿 / 医師協会の集団休診遺憾 / ソ・ソク
- 56 NEWS & ISSUE /世界平和に導く韓日トンネル、対馬調査斜坑起工式他
- 58 発行人の手紙 /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の本軌道・・・成功だけが残った / キム・ヒョン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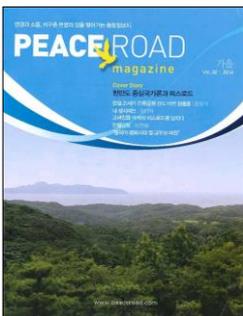
カバーストーリー 韓半島中心国家論とピ-スロード

- 06 韓日 21 世紀人類文明を先導するビジョン創りを / ホン・イルク
- 11 地球村平和達成は人類の最大目標 / パク・ジョンゴン
- 15 文総裁の平和事業が韓半島問題を解く鍵 / チェ・ヒョファン
- 19 韓日トンネル、新世代を開く最上の構想 / イ・カン
- 24 地球村を一つに結ぶ人類のピ-スロード / チャ・ジュニョン



お知らせ

2014年9月30日から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で発行する“ピーストンネルマガジン”がロードマガジンに変わり、発行間隔も月刊から季刊に変わることをお知らせいたします。ピ-スロード (peace road) は本財団創始者が地球村恒久的平和のために主唱した“国際平和高速道路網”という用語を圧縮・広義的に表現している。



韓国と日本の大学生らが日本の九州 佐賀県の韓日トンネル調査斜坑で顔を合わせ、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創設者、文鮮明総裁が国際平和高速道路 (別名ピ-スロード) 構想の一環として主唱した韓日トンネルの建設のために力を合わせようと決意した。写真は韓日トンネルの調査斜坑の地上部分から眺めた韓半島に向けて広がった韓日トンネルのルート全景

発行日 2014年9月30日
 発行人 キム・ヒョンス
 編集長 チョン・ソンス
 写真 イ・ジャンファン
 デザイン チャン・インソク

発行所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
 150-714 ソウル市永登浦区国際金融路8通11
 デョンビルディング 921号
 登録 2010年9月3日
 登録番号 永登浦 마000111
 電話 02-3471-7696 FAX 02-3471-7690